

민주연구원 '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시리즈4 : 대전시민의 눈물' 발간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1월 22일(목), “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4편 : 대전시민의 눈물” 정책브리핑 특별호를 발간했다.
 - 민주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, 20일 부산, 21일 인천에 이어 22일 대전, 23일 울산 등 해당 지역의 평가 보고서를 매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, 다음 주 26일부터 도 지역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.
 -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“정책브리핑 특별호 4편, 대전시민의 눈물’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책과 행정을 평가”했으며, “전임 시정 성과 지우기, 일방 행정과 불통의 모습, 실언과 정책의 문제 등을 정리했다”고 설명했다.
 - 이어 “이번 정책브리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시민이 이장우 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선거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발간했다”라고 설명했다.
- 이번 정책브리핑은 이장우 대전 시정의 10가지 문제를 세 가지 주제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.
 - 첫째, 전임 시정의 업적 지우기다. 활발하게 이용되던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취임 직후 폐지하고 호평받던 브랜드 슬로건 대전이슈(Daejeon is U)를 지우는 등 전임시정의 우수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축소, 폐지한 사례를 다루었다.
 - 둘째, 비민주적 정책 추진과 언론관이다. 주민참여예산제 축소, 시민사회 지원 폐지, 소통 없는 언론관과 12.3 계엄시 ‘나도 피해자’라는 발언 등 비민주적인 모습을 다루었다.
 - 셋째, 정책 실패이다. 사업성이 부족한 보문산 개발 관련 논란, 도시철도 3·4·5호선 졸속 추진, 2호선 트램 착공 관련 문제, 산업단지 현실성 등 정책 관련 문제를 다루었다.
- 민주연구원 신영민 연구위원은 “이장우 시정의 주요 문제는 주민,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, 밀어붙이는 일처리 방식과 비민주적인 리더십”이라고 지적했다.